

# 경계인, 분단의 언어를 잇다

임경화\*

## 조승복과 남북한 언어 동질화 운동

**초록** 본 연구는 '경계인' 언어학자 조승복(趙承福, 1922-2012)의 생애사와 활동을 통해, 분단 이후 심화된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실천적 모델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의 남북 언어 통일 담론은 주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사이의 접점을 찾는 국가 중심적 차원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외부의 디아스포라들이 전개해 온 실존적 실천들은 학술적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간도에서 태어나 일본, 미국을 거쳐 스웨덴으로 망명한 조승복의 독특한 장소성과 중립적 시각에 주목한다. 그는 1970년대 후반 고향 연변을 방문하며 '연변 조선어'를 발견하고, 이를 남북의 언어를 매개할 수 있는 '제3의 우리말'이자 언어 동질성 회복의 보루로 규정했다. 조승복은 연변 조선어의 학술적 가치를 서구 학계에 소개하는 한편, 언어 통일이 문화 및 정치 통일의 전 단계가 됨을 역설하며 남북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 언어 계획을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남한 학계와 긴밀히 교류하며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동·추·회)' 등을 조직하여 실천적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국가 권력의 개입이 차단된 중립적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 이념을 바탕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남북을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록 그의 운동은 분단이라는 거대 구조의 벽, 과거 규범에 집착한 비현실성, 그리고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현실적 조건과 개인적 원칙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혈통이 아닌 언어와 문화적 유대감을 중심으로 민족의 범주를 확장하려 했던 그의 '개방적 민족관'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인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의 시도는 분단 체제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민족적 자산을 포용하려 했던 실천적 민족론의 발현이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현대적 의의가 크다.

**주제어** 조승복, 경계인, 남북한 언어 동질화 운동, 연변 조선어, 코리안 디아스포라, 언어 계획, 중립주의, 개방적 민족관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부교수

## 1. 머리말

분단 이후 80년을 넘게 이어진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은 단순히 어휘나 표기법의 차이를 넘어 민족공동체의 심리적 단절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언어 동질화 운동은 1980년대 후반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서 본격화되었으나, 그간의 논의는 주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라는 양자 간의 접점을 찾으려는 국가적·제도적 차원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체제 중심적 접근은 대개 남과 북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고착되어, 양측의 정치적 문법과 규범적 정당성이 충돌하는 각축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정작 한반도 외부의 경계 지대에서 우리말의 존립을 위해 고투해 온 디아스포라들의 실존적 실천들은 학술적 논의의 주변부로 밀려 나거나 간과되어 왔다. 재외 코리안들에게 ‘우리말’은 관념적인 ‘민족어’이기 이전에, 현지 주류 언어와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소수자들의 언어생활을 지탱해야 하는 모어(母語)의 생존 문제였다. 거주국 다수자의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모어 상실의 위기를 겪거나, 그마저도 남북 어느 쪽의 규범을 따라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 생활의 고뇌는, 체제 중심적인 언어 통일론이 담아내지 못한 디아스포라만의 특수한 지평이다.

이에 본고는 남북 어느 한쪽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재외 코리안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 안에서 민족어의 동질성을 집요하게 탐구했던 경계인 언어학자 조승복(趙承福, 1922-2012)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sup> 1922년 간

1 조승복의 디아스포라적 삶과 언어관에 대해서는 임경화와 허인영의 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임경화(2022), 「중립 지향의 재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아서: 북구의 언어학자 조승복의 어떤 전후사」, 『인문논총』 79(4), 인문학연구원, pp. 249-282; 허인영(2024), 「북유립으로 간 언어학자: 조승복(1922-2012)의 삶과 한국어 연구·교육」,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71-116. 최근에는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5(1)에 조승복의 학술적 성취와 사회적 참여 및 양자 사이의 깊은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조명된 특집[Cho Seung-bog (1922-2012): at the Crossroads of

도(間島)에서 태어나 만주국이라는 복합적 언어 환경을 경험한 그는, 용정(龍井)의 명문 광명(光明)중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고 관비(官費) 유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193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해방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가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반전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아 1952년에 스웨덴으로 망명한 후 언어학자로 정착하여 평생을 보냈다.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가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남북 언어 통일운동에 본고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간도, 일본, 미국, 스웨덴이라는 분단의 바깥에 위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모어인 ‘조선어’와 마주하며 존재론적 의미를 천착했던 언어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한을 아우르거나 거리를 두는 고유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생활인으로서 겪는 언어적 소외와 학자로서의 분석적 시각을 결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한에서 전개된 남북한 언어 동질화 운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민족어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다.

조승복의 남북한 언어 동질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변광수, 김영호, 허인영 등의 언급이 있었다.<sup>2</sup> 이 중 변광수와 김영호는 조승복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인물들이다. 스웨덴어학자인 변광수는 1970년대에 스톡홀름 대학에 유학한 조승복의 제자로, 귀국한 후에도 조승복과 교류하며 두터운

---

Academia and Activism]이 실려 아래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Edström, Bert (2025), “Twists and Turns in the Life of a Remarkable Scholar”; Tikhonov, Vladimir (2025), “Cho Seung-bog: An Academic Life in Overlapping Contact Zones and the Meanings of Reversed Nihonjinron”; Lim, Kyoung-hwa (2025), “Opposing War in the Heart of the West: Cho Seung bog’s Antiwar Activism after the Korean War”; Cho, Wonhyong (2025), “Cho Seung-bog (1922–2012) as a Linguist: Focusing on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1967)”.

2 변광수(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pp. 1-35; 김영호(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을 읽고」,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pp. 37-48; 허인영(2024), pp. 71-116.

신뢰관계를 이어갔다. 철학자인 김영호 또한 1960년대 초부터 조승복과 인연이 깊었던 함석헌과 안병무의 제자로, 1980년대 후반부터 조승복과 친분을 쌓으며 그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글은 조승복 사후에 그의 통일운동을 회고하며 추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승복의 언어 동질화 운동 자체를 연구 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은 허인영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허인영의 논의 역시 조승복의 언어연구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분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소략하고 깊이 있는 고찰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언어 통일운동의 거시적 맥락에서 조승복의 언어 동질화 운동이 지니는 독자적인 위상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조승복이 견지했던 중립주의와 시민사회 이념이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어떠한 토대를 제공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운동이 단순한 언어 계획을 넘어 민족 통합의 가치론적 지향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조승복의 개인사와 활동에 대해서는 2004년에 한국어로 간행된 회고록<sup>3</sup>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시기 그가 작성한 일기, 논문, 서간이나 그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검증하며 작성되었다. 조승복의 미간행 자료들은 스웨덴 옘살라대학 도서관(Carolina Rediviva)에 소장된 조승복 아카이브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2. ‘간도(연변) 조선어’의 발견

조승복은 1969년과 1970년 남한과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양측을 각각

— www.kci.go.kr

3 조승복(2004), 『분단의 根: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 대구: 케리그마.

공식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남북한은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하에서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이후로는 ‘중립’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한 어느 쪽과도 거리를 두었다. 대신 그는 국가 권력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해외 거주 동포들과의 소통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약 40년의 공백을 깨고 고향 연변(延邊)을 방문하는데, 이를 통해 민족어 동질화 운동에 대한 학문적 지향점을 구체화한다.

그는 1939년 만 17세의 나이에 만주국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용정을 떠난 뒤, 일본과 미국, 유럽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언어학자가 되었지만, 망명자로서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고독, 고향에 대한 부채의식에 항상 고뇌했다. 그러던 중 중국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이 종언을 고하고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고향을 방문할 적기로 판단하고 연변 출신자에게 발급되는 친족 방문 비자를 손에 넣고 1978년 9월 드디어 연길(延吉)을 방문한다.

이때 연변대학에서 언어학 관련 강연을 하고 조선어문학부의 정관룡(1931-2006), 최윤갑(1930-2022) 등 현지 학자들과 조우했고, 북경에서는 북경대학 조선어과에서 『조한-한조사전』을 편찬 중이던 안병호(1929-2019)를 만났다. 조승복은 이들이 주로 연변대학과 김일성대학에서 수학했고, 중국의 언어정책에 따라 우리말을 북한식으로 ‘조선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한다.

1980년 7월에 조승복은 중국 교육부의 공식 초청으로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스웨덴 중국대사관의 담당자로부터 그의 태생이 중국(연변)이라는 것이 초청의 이유였을 거라는 말을 듣는다.<sup>4</sup> 그는 북경대학 조선어과의 최응구(1937년생) 등과 교류하며 1개월간 머물렀고, 그동안 중국 사회과학원과 스톡홀름대학, 북경대학과 스톡홀름대학 사이의 학술교류협정을 성사시켰다.

4 조승복(2004), p. 737.



출처: 조승복 아카이브(Suk-hi Cho 기증)

[그림 1] 연변대학 주덕해(朱德海) 동상 앞에서 조승복과 연변조선어학회 회원들과의 단체 기념 촬영(연변, 1980)

나아가 조승복은 변방의 학문공동체였던 연변대학도 유럽 학계에 소개하고자 하여, 그 대상으로 연변대학에서 연구하는 ‘조선어’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모어이기도 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를 “조선어 3대 방언의 하나”로서 “남쪽의 조선어, 즉 한국어와 북쪽의 조선어의 중간에 위치한 말”인 “간도 조선어 혹은 연변 조선어”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sup>5</sup> 즉, 그는 분단된 남북의 언어를 매개할 수 있는 제3의 우리말로서의 ‘간도(연변) 조선어’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승복은 스톡홀름대학 동양언어연구소와 연변대학 조선어연구소 사이의 연구 협력 협정 체결도 성사시킨다.

조승복은 1981년 7월에도 중국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때 마침 북경조선어학회<sup>6</sup>가 창립되어 창립식을 개최했는데, 그는 이

5 조승복(2004), pp. 744-745.

6 조승복에 따르면 이 조직은 1981년 7월 11일에 창립식을 가졌고, 회장에 김만선, 부회장에 최재우, 최응구, 안병호를 포함한 6명이 인선되었다[조승복(2004), pp. 781-782]. 비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때에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분단 때문에 근 30년 동안 같은 말을 써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북 양쪽에서 쓰고 있는 우리 民族語의 同質性이 稀微해져 나가는 狀況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민족이 놓여 있는 地政的 立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言語生活은 남북 어느 쪽에도 偏傾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의 동질성을 정치적 간섭 없이 유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민족어의 동질성을 향상시켜 남-북 양쪽이 言語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언어통일이 문화통일의 地盤이며 동시에 政治統一의 前段階가 됩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여러분들이 조직한 오늘의 모임은 민족통일 촉진에 크고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sup>7</sup>

요컨대, 조승복은 간도(연변) 조선어를 남과 북의 극심한 언어 이질화를 중재할 수 있는 민족어 동질성 회복의 보루로 보았다. 그는 연변이라는 경계적 공간이 지닌 언어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정립함으로써, 분단된 한반도를 잇는 문화적 토대이자 언어 통일의 마중물로서 ‘간도(연변) 조선어’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한 것이다.

조승복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조선족과 그들의 언어(The Koreans in China and Their Language)」<sup>8</sup>를 영문으로 집필했다. 이 논문은 연변

---

스한 시기인 1981년 8월 15일에는 심양시에서 중국조선어학회가 창립되는데, 이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연변조선어학회가 길림, 흑룡강, 요녕, 북경 등 4개의 분회를 아우르며 정식 학회로 출범한 것으로, 북경조선어학회는 중국조선어학회의 분회로 보인다. 리문철(2001), 「중국조선어학회 창립 20주년기념대회에 참가하고서」, 『중국조선어문』 2001(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 64.

7 조승복(2004), p. 781.

8 Cho, Seung-Bog (1982), "The Koreans in China and Their Language", *Fenno-Ugrica Suecana* 5, Uppsala: Uppsala universitet, pp. 23-56.

의 언어 문제를 다룬 이른 시기의 연구로, ‘우리말’의 이질화 현상을 일찍이 포착하여<sup>9</sup> 서구 학계에 ‘간도(연변) 조선어’의 학술적 가치를 처음으로 소개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조승복은 우리말을 분단 이전 서울의 표준말,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에 맞게 수정된 표준말인 문화어, 연변 지역 이주민 사회에 맞게 수정된 표준말인 연변 지역어(Yanbian regional dialect)로 나누어 고찰했다. 특히 과거 ‘간도 방언’으로 불린 연변 지역어는 조선인 이주 초기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용정 정착민들의 함경도 방언과 망명한 지식인들의 서울 방언에 의해 다듬어진 언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연변 지역어가 문자언어(written language)에서는 북한의 문화어와 비슷하지만, 음성언어(spoken language)에서는 표준말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연변 지역어가 표준말과 문화어 사이에 놓여 있다(stand between)고 보았다.<sup>10</sup>

한편, 연구대상으로서의 ‘간도(연변) 조선어’의 발견은, 중국과 한반도의 경계에 있는 연변 출신으로서의 조승복의 정체성을 활성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연변대학 신문학과 교수가 된 최상철은 이때 조승복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연변조선족 출신인 조선생님께서 국제상의 저명한 학자로 된 데 대해 우리 연변조선족 인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조승복도 “그동안 전 어디를 가나 제가 이 고장에서 나서 이 고장의 물을 마시고 자란 조선사람이란 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sup>11</sup> 또한, 위에서 언급한 스톡홀름대학과 연변대학 간 협정의 일환으로 1982년에 스톡홀름대학을 방문하여 조승복과 연구 교류를 가진 정판룡도 당시를 회고한 글에서 “조승복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연변이 낳은 훌륭한 아들이며 학자”<sup>12</sup>라고 했다. 1984년에 북경

9 허인영(2024), pp. 106-107.

10 Cho, Seung-Bog (1982), p. 37.

11 최상철(1980), 「스웨덴학자 조승복 교수를 찾아서」, 『연변문예』 78, 《延边文艺》月刊社.

12 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편(2008), 『정판룡, 세계를 가다』,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p. 36.

대학과 연변대학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화교연합회(中國僑聯)에서 찾아와 “趙교수는 연변에서 성장하였으므로 ‘화교(華僑)’의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했을 때도, “문화적이나 정경적(政經的)으로 약하고 빈한할지언정 조선(한국)민족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sup>13</sup>

그러나 당시 ‘간도(연변) 조선어’에 대한 조승복의 제안에 대해 현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측할 만한 사건이 1982년에 일어난다. 조승복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초청을 받아, 문혁 이후 중국 언어학계가 주최한 최초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5회 국제한장어언학 회의(國際漢藏語言學會議)에 참석한다. 그 후, 연변으로 발길을 옮겨 중국조선어학회에서 강연을 한다. 하지만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그는 실망감을 맛보게 된다. 당시 조선족 연구자들은 문자언어 중심의 규범론적 연구가 중심이고 정작 연변의 음성언어에 대해서는 연구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승복은 그들에게 연변에서 사용되는 조선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즉, 연변 조선어는 단순히 본토에서 건너온 ‘이민 방언’으로 보는지, 아니면 연변 사회라는 특수한 토양에서 자라난 독자적인 ‘연변지구어’로 간주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sup>14</sup> 이는 ‘간도(연변) 조선어’가 지닌 민족사적·학술적 사명을 포착했던 조승복과 달리, 정작 그 말을 사용하는 주체들은 자신의 언어를 학문적 정체성을 지닌 독립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승복의 이러한 실망감의 이면에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문혁기 연변사회의 혼란과 학문적 침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존재했음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당시 중국 학계의 학술적 토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혁 동안 중국 내 언어학 연구는 사실상 단절되었으며, 언어를 고정된

13 조승복(2004), pp. 870-872.

14 조승복(2004), p. 828.

체계가 아닌 사회적 요인에 따른 변이체로 파악하는 ‘사회언어학’ 개념은 1979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sup>15</sup> 음성언어를 핵심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이 부재했던 당시 연변의 연구자들에게, ‘살아있는 언어’를 중심에 둔 연구를 기대하기에는 학문적 시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더욱이 연변 조선족 사회가 겪은 정치적 트라우마를 간과할 수 없다. 문혁은, 소수자들이 거주하는 중국의 변강 지역에서는 소수자들의 간부층을 숙청하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국가의 지배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이었다. 문혁 당시 연변은 조선족 지도층이 ‘지방 민족주의자’로 몰려 배제되는 내부적 시련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 악화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과 연계된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국가적 탄압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중국 사회에서 철저히 ‘타자화’되었으며, 이러한 생존의 위협과 심리적 압박은 일상의 기억으로 깊게 각인되었다.<sup>16</sup> 따라서 30년 가까이 스웨덴이라는 자유로운 학문적 토양에 머물렀던 조승복으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현지 연구자들의 자기방어적 태도와 그 기저에 깔린 역사적 상흔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승복이 발견한 ‘제3의 우리말’이라는 가치는, 발견자인 그와 실천자인 현지 연구자들 사이의 온도 차라는 과제를 남기게 된 셈이다. 이후 이 문제의식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개인 차원의 연구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한편 조승복은 1984년 스톡홀름대학에서 한국문학 세미나를 주최하며 그간 고수해 온 남북 양측과의 거리두기, 즉 ‘소극적 중립’에서 벗어나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정견과 체제를 막론하고 문화적으로는 양측 모두와 협

15 Zhou, Minglang (2010), “Sociolinguistic Research in China”, *The Routledge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Around the World* (ed. by Martin J. Ball), Routledge, p. 69.

16 정호윤(2017), 「문화대혁명 속 타자(他者): 연변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28.

력하겠다는 ‘능동적 참여’로 태도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남측 학계와 긴밀히 교류하기 시작한다. 학술적 차원에 머물렀던 ‘간도(연변) 조선어’의 발견이 언어의 이질화라는 민족적 위기감을 일깨움으로써 그의 행보는 자연스레 실천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 3.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모색

조승복은 1988년 10월 한글학회 80주년 기념으로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주제로 한 제3회 국제언어학자대회에 참가하여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수와 연구 현황」을 발표한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가 이 행사에 참가한 이유는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양쪽에서 쓰고 있는 말을 통일하면 정치적 통일이 쉽게 성취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7</sup> 위의 발표문에서도 그는 남북 언어의 공통 분모를 보존하는 것이 통합의 선결 과제임을 강조하며, 남한의 한자 사용 부활이나 북한의 ‘문화어’ 정책이 지닌 배타성을 비판했다.<sup>18</sup>

회의 이후 그는 이중언어학회를 주도하던 국어학자들인 박영순과 김민수(1926-2018) 등과 교류한다. 이들은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이중언어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첫 시도로 중국조선족의 언어를 한국어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북경에서 개최하고자 하여 조승복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이 시도가 민족통일의 전 단계로서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준비 과정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경에 들러 북경대학의 최응구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

17 조승복(2004), p. 979.

18 조승복(1988),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수와 연구 현황」, 『한글』 201·202, 한글학회, pp. 284-285.

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개최하는 학술회의에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기가 어렵다”<sup>19</sup>거나 “친북 학자들만 초대해 달라”<sup>20</sup>는 요청 등을 해 오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상황이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이었고, 조승복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남북한 언어 통일운동에 관여한다. 그 계기는 국어학자인 김민수와 의 재회였다. 조승복의 회고록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던 그는 1989년 5월 김대중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는데,<sup>21</sup> 이때 김민수가 그를 찾아왔다. 김민수는, 1985년에 “북한의 언어에 대한 최초의 심층분석”<sup>22</sup>으로 알려진 『북한(北韓)의 국어연구(國語研究)』를 출간하여 북한의 언어정책으로 인해 “민족동질성을 지켜주던 언어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고 진단하고,<sup>23</sup> 민족 통일의 핵심인 언어 통일을 위해 남북한 언어학자들 사이에 민족어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4</sup> 또한 이중언어학회를 조직하여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이를 발판으로 남북 언어 통일 운동을 선도하고자 했다.

시대적으로도 당시 국제 정세가 냉전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1986년에는 북경대학의 최응구 등이 ‘조선언어문학 국제토론회’를 주최하여 류렬(1918-2004), 김영황(1930-) 등 북한 학자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이 중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캐나다, 서독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했

19 조승복(2004), p. 1006.

20 조승복(2004), p. 1039.

21 조승복(2004), pp. 1048-1049.

22 「『북한의 국어연구』 펴내」, 『중앙일보』, 1985. 11. 18.; 「북한 言語 최초로 심층分析 종속 이론 多角 시각서 정리」, 『경향신문』, 1985. 11. 19.; 朴榮順(1986), 「金敏洙 著 『北韓의 國語研究』」, 『亞細亞研究』 7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p. 249; 최경봉 외(2023), 『우리말이 국어가 되기까지: 대화로 읽는 국어 만들기의 역사』, 서울: 푸른역사, p. 333.

23 「『北韓의 國語研究』 펴낸 金敏洙 교수 “北韓말 통역 없이는 理解 못할 지경에”」, 『경향신문』, 1985. 11. 27.

24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pp. 160-161.

다.<sup>25</sup> 1988년 8월 북경대학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에는 북한의 대표적 언어학자인 김수경(金壽卿, 1918-2000)도 참가하여 비밀리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sup>26</sup> 또한, 김민수가 조승복을 방문하기 1개월 전에는, 통일운동의 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익환 목사가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고, 남북이 공동으로 국어사전을 편찬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sup>27</sup> 김민수는 이 합의에 상당히 고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8</sup>

그가 이때 조승복을 찾은 이유도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학술적 모임을 조직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남북 양측 언어학자들의 모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좌장으로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조승복에게 해당 역할을 맡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승복도 언어적 복원이 곧 공동체 회복의 전 단계라는 인식 아래, 이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sup>29</sup>

이들은 곧바로 1990년 7월에 고려학회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남북학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여 움직였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이중언어학회와 중국조선어학회 공동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

25 김금석 외(1988), 『조선언어문학 국제토론회 논문집』, 北京: 민족출판사, p. i.

26 이타가키 류타(2024), 고영진·임경화 역,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서울: 푸른역사, pp. 434-436. 이타가키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와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것으로, 12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행사였다.

27 「3단계 통일론 내농자 김주석 고민」 문익환 목사 본지 단독 인터뷰 내용, 『한겨레』, 1989. 4. 7.

28 시기는 다소 뒤쳐지지만, 김민수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94년 1월에 문익환 목사의 요청으로 통일 국어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자문을 했다고 한다. 김민수·이상혁(2009), 「이곳 이 사람: 김민수」,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원, pp. 80-82.

29 조승복(2004), pp. 1063-1064. 조승복의 스웨덴어 일기에 따르면, 이때 1990년에 남북 학자와 중국 학자의 삼자로 구성된 학술회의를 기획한다. Cho, Seung-Bog (1989), *Resedagbok: 1989.5.5.-9.7.*, Unpublished draft document, Cho Seung-bog's Archive, Uppsala University Library, Carolina Rediviva, Sweden.

술대회를 갖는 데 그치고 만다. 그 직후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1991년 7월에는 이중언어학회 단독으로 모스크바에서 남북언어학자들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불발로 끝나고 만다. 이때는 조승복도 참석했으며, 북측 대표들이 부재한 가운데 ‘한국어 통일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조승복을 좌장으로 하여 열렸다.<sup>30</sup>

토론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는 김민수·이용백·진태하 등 남한의 국어학자 외에도 미하일 박(Mikhail N. Pak, 1918-2009)과 같은 재소 고려인 학자를 포함해 총 10명이었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방지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참가자들은 남북 간 언어 통일이 남북 사회에 필요할 뿐 아니라, 당시 한국과 교류를 시작한 소련과 중국에 거주하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에 빠진 공산권 동포들에게도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 하지만 남북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나 음악 등 문화 교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언어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가 거듭 무산되자, 이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토론회는 조승복이 제안한 ‘비공식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즉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다리기보다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분단 외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애국심이 있고 언어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을 (북한으로) 보내서” ‘다리를 세우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조승복이 언급한 ‘분단 외에 사시는 분’이란 중립적 위치에서 남과 북 양쪽과 교류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며 이 자리에서 미하일 박이 ‘다리를 세우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 토론회에서는 김민수와 조승복 사이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둘러싸고 미묘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 김민수는 “언어통일은 정치

30 이하 내용은 토론회 회의록에 따름. 조승복 외(1991), 「한국어 통일방안」, 『二重言語學會誌』 8, 二重言語學會, pp. 645-656.

적으로 통일되기 이전부터 서로 노력하고 발음도 힘써서 통일한다면 고려인은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하여<sup>31</sup>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일운동의 추진자, 중개자라기보다 통일된 언어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으로 본 반면, 조승복은 그들을 분단을 넘어 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 혹은 중개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그들’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비공식 방식’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 운동에 고무된 조승복은 1992년 5월에 범민족적 ‘우리말 동질성 향상 운동’을 제안하고 김민수 등의 찬동을 얻어 실천적 학술단체로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약칭, ‘동·추·회’) 조직에 나선다.<sup>32</sup> 처음에는 당시 통일원에서 친북계의 상임기구 참여는 불가하다고 하여 조승복의 회장 선출을 불허했으나,<sup>33</sup> 창립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3년 6월에는 북측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당시 통일원 장관이었던 한완상을 만나 찬동을 얻어낸다.<sup>34</sup> 이후 김민수는 11월에 중국에서 최용구 등을 통해 북측 실무자들과 만나 ‘범민족적 국제 행사’ 기획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sup>35</sup> 조승복은 1994년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동·추·회’ 캐나다 지부 창설을 위해 움직였다. 그가 캐나다에서 접촉했던 동포 중에는 김수경의 첫 아내인 이남재(李南載)도 있었다.<sup>36</sup> 같은 해 2월에는 학계 인사들 중심의 123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동·추·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조승복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창립 선언문<sup>37</sup>에 따르면, 이 모임은 “분단

31 조승복 외(1991), p. 648.

32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1994),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 소식』 창간호,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 p. 9.

33 金敏洙(2007), 『現代語文政策論: 그 실패와 개선안』, 서울: 한국문화사, p. 994.

34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1994), p. 9.

35 김영호(2014), p. 45;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1994), p. 9.

36 조승복(2004), pp. 1068-1071;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1994), p. 9.

37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조승복 아카이브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자필 문서가 남아 있다.

된 남북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우리 동포는 서로 단절상태에서 반세기나 지나 “의사소통과 상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공통요소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현상을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화 현상을 지양하고 동질성을 되찾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하며, 범민족적인 동질성 회복 운동을 제창한다.<sup>38</sup>

그러나 이 운동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1994년 8월경에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던 ‘범민족적 국제 행사’가 무산되고 다시 행사 개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추·회’ 멤버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 운동 자체가 표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웨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조승복은 그 원인을 ‘동·추·회’ 간부들의 경험 부족과 세대 간 갈등에서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7월에 급히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이 방문을 위해 중국 유학 중이던 자녀를 프랑스로 불러 임종 직전의 아내를 돌보게 해야 했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문제가 조승복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에서 조승복이 김민수에게서 들은 것은 뜻밖의 이야기였다. 즉 “조선(=북한) 측에서는 김민수 교수가 ‘동·추·회’의 회장이 되는 것을 바라며, 조승복 교수가 총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sup>39</sup> 이렇게 보면 남한도 북한도 조승복이 이 단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한편, 김민수는 당시 상황을 조승복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김민수의 기록에 따르면 제1회 범민족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1995년 6월 ‘동·추·회’ 부회장이던 이충희와 함께 북경에서 북측 실무자들과 회담을 가졌을 때, 이충희가 합의되지 않은 개최지(인하대학교)를 주장하면서 북측과의 합의문 작성이 결렬되었다. 이에 김민수는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

38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1994), p. 1.

39 조승복(2004), p. 1072.

행하지 않은 총무 김영호를 배제하고 당면한 학술대회 추진을 위해 실무진을 재편했으나, 도리어 김영호, 이충희, 조승복 등으로부터 집단적인 성토를 받게 된다. 결국 김민수는 이러한 규탄에 반발하여 회장직과 회원직을 모두 사퇴하기에 이른다.<sup>40</sup>

이처럼 양자의 기록은 그 초점이 상이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운동 초기 조승복의 소개를 통해 남과 북을 매개하던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직접 김민수와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조승복의 중재자적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조승복이 견지했던 비판적인 대북 인식(후술)도 이러한 소외 양상을 가속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쪽이든 ‘동·추·회’ 실패의 직접적 원인은 북한학자들과의 접촉 실패였는데, 그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북한 측의 조승복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승복의 활동을 한국에서 대리하던 김영호도 “북한에서는 중립을 고수한 조교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조승복의 통일운동이 지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의 이상은 남북 양쪽의 이념과 체제를 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향하는 목표로 치고 실제로는 양쪽 사람을 인간적으로 포용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했었다. 현실적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조화시키는 공감적인(emphatic) 접근을 했어야 했다.<sup>41</sup>

김영호는, 남북 양측과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조승복의 중립주의가 현실적인 통일 운동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 중립주의’로 보완되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승복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1970년 방북 경험이 있고 만주 광명중학교 출신 인맥이 남북한 요직에 포진해

40 김敏洙(2007), 『現代語文政策論: 그 실태와 개선안』, 서울: 한국문화사, p. 1003.

41 김영호(2014), p. 45.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42</sup> 유연한 자세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고집스러운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다.<sup>43</sup> 변광수도 김영호의 비판을 수용하여 조승복 “특유의 고집스런 자세와 엘리트 의식”이 ‘동·추·회’ 운동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sup>44</sup> 조승복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두 학자가 이러한 비판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조승복의 중립주의가 실제 운동 차원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화적으로 남북 양측 모두와 협력하겠다는 조승복의 결심과 달리, 1986년 이후 남한에는 자주 방문했지만,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의 방북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북의 외화획득운동이나 김일성 우상화에 실망하여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갈등 이후 ‘동·추·회’는 해체되었고,<sup>45</sup> 조승복도 ‘동·추·회’를 남북 학자 교류 사업보다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연구하는 단체로 개편하여 ‘우리말 우리문화 동질성 연구학술회’(약칭, ‘동·연·회’)를 조직했으나 머지않아 별다른 활동 없이 잊혀지면서 그의 언어 통일 운동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남북한 언어 통일 운동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거리를 두었던 조승복의 중립주의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로부터 소외되고 만다. 더욱이, 그의 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그것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는 연구의 장에서도 소외되었다. 본고가 조승복이 구상한 남북한 언어 통일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42 이는 김영호의 오해로, 광명중학교 출신이 남한 요직에 포진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에서는 지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승복은 1978년 연변을 방문하고 동창생들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조승복(2004), p. 722.

43 김영호(2014), pp. 44-45.

44 변광수(2014), p. 29.

45 ‘동·추·회’의 소식지인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 소식』은 1994년 6월 20일 창간되었다. 이후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 회보』로 제호를 변경하여 1995년 11월 10일 제2호를 발행했으나, 이를 끝으로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4. 조승복의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1989년 김민수와의 만남에서부터 ‘동·추·회’ 해산 전후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언어 통일 구상과 관련하여 조승복이 한국에 발표한 글은 두 편이다.<sup>46</sup> 하나는 1991년 『이중언어학회지』(二重言語學會誌)에 게재된 영어 논문 「새 시대의 고려어」(The Korean Language of the New Era)이며,<sup>47</sup> 다른 하나는 1994년 ‘동·추·회’ 캐나다 지부 창설을 위해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행한 강연의 원고로, 1996년 『새국어교육』에 발표된 「통일의 길」이다.<sup>48</sup>

「새 시대의 고려어」는 한국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된 조승복의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이다. 이 글에서 조승복은 냉전의 종식과 독일 통일이러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으로 진단하고, 이를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새 시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했다. 당시 여전히 ‘냉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던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재통일을 이룩한 독일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나, 조승복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언어적 동질성 회복이 지정학적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제하에 총체적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사회언어학에서 언어 계획이란 어떤 언어집단의 언어행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조승복은 구성적 방안(constructive measure)과 예방적 방안(preventive measure)을 제시한다.<sup>49</sup> 하지만 언어 계획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개념은 지위 계획(status planning)과 실제 계획(corpus planning)이다.<sup>50</sup> 지위 계

46 이 두 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허인영(2024), p. 107 참조.

47 Cho, Seung-Bog (1991), "The Korean Language of the New Era", *Ijung-eoneohakhojei* (二重言語學會誌) 8, Seoul: Ijung-eoneohakhoe (二重言語學會), pp. 154-194. 본고에서 ‘the Korean language’를 고려어로 번역한 것은 민족어 명칭에 대한 조승복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Cho, Seung-Bog (1991), pp. 160-161.

48 조승복(1996), 「통일의 길」,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pp. 1-54.

49 Cho, Seung-Bog (1991), p. 158.

획은 언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을 반영하여 언어적 혹은 언어 외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언어의 사회적 역할, 기능, 지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활동을 다룬다. 반면, 실제 계획은 언어 자체의 내부적인 형태나 내용을 표준화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조승복이 말하는 구성적 방안은 실제 계획에 가깝고 예방적 방안은 지위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승복의 글에는 예방적 방안 이외의 지위 계획과 관련된 언급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지위 계획과 실제 계획이라는 일반적인 분석 틀을 통해 조승복 논의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지위 계획과 관련하여, 조승복은 남북한의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통일 국가의 언어에 중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예를 들어 그는 민족어의 명칭으로 남한의 ‘한국어’나 북한의 ‘조선어’를 절충하는 대신, 역사적으로 언어 동질성의 정치적 토대인 통일 국가가 마련된 고려 왕조의 이름을 딴 ‘고려어’를 제안하여 제3의 명칭으로 언어 명칭의 중립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1991년 집필 당시 유엔 가입을 두고 남북한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조승복은 남북한 동시 가입을 분단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고 고착화하여 언어 동질성 회복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방안으로 남북한이 단일 의식을 확보하고 번갈아 대표권을 행사하는 모델을 차선책으로 제시하여 정치적 분단이 언어의 지위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한편, 실제 계획(=구성적 방안)과 관련하여 조승복이 제안한 것은 남북의 학자들이 정치적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주제들이었다. 예컨대 용언의 ‘르’ 불규칙 활용이나 ‘ㄷ’ 불규칙 활용 등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한국어의 운율과 기원 및 계통 등을 공동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50 Kloss, Heinz (1969), *Research Possibilities on Group Bilingualism: A Report*, Quebec: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on Bilingualism, pp. 81-88.

것 등을 제안한다. 나아가 조승복은 미래의 통일 국가가 새로운 시대의 세계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 한국의 표준어가 민주적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여 언어의 형태 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요컨대 민주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전통적인 수직적 위계 관계를 나타내는 과도한 대우법 표현이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존칭 접사 대신 공손 접사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조승복의 ‘언어 계획’은 사회언어학의 이론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한 실천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언어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정치를 이용해 언어의 지위를 지키고 언어를 통해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언어 계획의 통합적 설계도의 성격이 강하다. 조승복의 언어 계획의 독창성은 ‘예방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언어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포함시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5년 후에 발표된 「통일의 길」(1996)은 분단된 조국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새 시대의 고려어」가 언어학자로서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언어 계획의 설계도를 그렸다면, 「통일의 길」은 그 언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문화적 토대와 통일 국가가 지향해야 할 사회철학을 다룬다. 즉, 언어 통합을 포함한 더 큰 범위의 민족 통합론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냉전 해체에 따른 시대적 격변에 기민하게 부응하고자 했던 전향적 자세가 돋보이는 「새 시대의 고려어」와 달리, 「통일의 길」은 분단 반세기를 되짚어보며 그 궤적을 갈무리하는 성찰적인 호흡이 투영된 결과로 읽힌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의 글에서는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좁히는 기술적 방법에 주목했다면, 「통일의 길」에서는 ‘우리말·우리문화’의 특성을 분석하며 동질성 회복의 발전 논리를 전망한다. 즉, 조승복은 우리 문화를 고정된 단일체가 아니라, 역사의 층위에 축적된 수많은 외래적 다양성이 흡수·

동화되어 형성된 중층적 단일체로 파악했다. 그에게 있어 현재(顯在)문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면에 드러난 양상이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잠재문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현재문화를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핵심요소인 언어에서의 남북간 이질화 역시 현재문화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시적 현상일 뿐, 그 기층에 내포된 축적된 다양성의 총합으로서의 ‘우리말’의 동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의 핵심이다. 조승복은 ‘통일의 길’을, 기층에 축적된 민족적 자산(잠재문화)을 확인하여 심리적·물질적 동등감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주적 체제(현재문화)를 합의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1991년에 언어를 통해 통일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설계를 시작으로 1996년에는 문화라는 뿌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으로 나아간 것이다. 전자가 언어 통일을 위한 기술적 매뉴얼이라면, 「통일의 길」은 통일국가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나침반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의 길」에서도 언어 계획에 대한 견해는 중심을 이루지만, 그 내용은 1991년 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새로운 언어 명칭으로 1991년 글에서 제안했던 ‘고려어’는 이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Korean language’에 해당하는 명칭으로는 ‘우리말’이 사용되었고, 한국어를 지칭할 때는 ‘남쪽 말’, 조선어에 대해서는 ‘북쪽 말’을 사용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통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1991년 글에서는 언어 계획의 목적이 동질성 회복 그 자체였다면, 「통일의 길」에서는, 상호 화해와 협조는 언어 동질성 회복에 의거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분단 49년 동안 남북이 각자 이룩한 언어 성과를 “우리 민족사에 있어 특수한 시대에 생긴 문화유산”으로 상호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통일 국가의 지향점에 맞게 “긍정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언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sup>51</sup> 즉, 그의 중립주의가 단순히 남한과 북

— www.kci.go.kr

51 조승복(1996), pp. 1-2.

한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거나 남북한을 절충하는 것을 넘어, 남북한 현존 체제의 이념적 한계와 모순을 모두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제3의 길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승복은 스스로를 ‘중립’이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에서는 “남쪽에서 쓰이는 말에 분단 전의 말에 의거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남쪽말을 본시말”로 비정하고, 북한의 ‘문화어’ 정책을 김일성 우상화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우리말의 고유한 체계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언어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문법적 전통이나 어휘의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 그의 ‘남쪽 말’에 대한 시각은, 반대편의 주장 즉, 류렬 등 북측 학자들이 남측 말은 일본어와 영어 등 외래어에 오염되어 “순수성과 고유성을 점차 잃어버리고 변질된 잡탕말”이라고 비판하는 시각<sup>52</sup>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요컨대 조승복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며, 전통적인 우리말의 원형을 의미하는 ‘본시말’을 기준으로 삼는 역사적 규범주의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통일의 길로 합리화하면서, 북한의 언어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조승복은 스스로를 남북 사이의 중재자로 설정하고 용어 사용 등에서 중립을 표방했으나, 두 사회로 분열된 언어 생활의 “동질성 회복은 단일사회 때에 쓰던 말의 성격으로 되돌아 가는 사업”이라고 하여,<sup>53</sup> 남한의 전통적 규범성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중립주의와 실제적 편향 사이의 이러한 한계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를 결코 중립적인 좌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조승복의 중립주의는 1991년과 1994년 사이에 그 성격이 다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의 그는 분단 체제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며 남북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52 류렬,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몇가지 이론적문제」, 『조선언어문학 국제토론회 논문집』, 北京: 민족출판사, 1988, p. 28.

53 조승복(1996), p. 25.

1994년 「통일의 길」이 강연장에서 발표되었을 때는,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시말’이라는 규범적 기준을 앞세운다. 이러한 그의 한국 편향적 시각에는, 복합적인 현실적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한의 민주화와 국제적 지위 상승, 재야인사들이나 학계와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남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스톡홀름대학 한국학 정규 강좌가 신설된 점<sup>54</sup> 등이 남한 사회에 경도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반면, 북한 사회의 김일성 우상화와 주체사상의 국수주의적 폐쇄성에 대해서는 체질적인 반감을 보였다. 이는 분단 체제하에서 중립에 선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변 조선어의 발견에서부터 이어진, 분단 극복의 토대가 될 언어적 정통성을 분단 이전의 서울 표준말에서 찾으려는 그의 학술적 확신이 선명해진 결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분단을 넘어선 언어 실천과 좌절

한편, 「통일의 길」 강연이 이루어졌을 때와 비슷한 시기인 1994년 ‘동·추·회’ 창립 당시 발표된 조승복의 짧은 글에서는 분단 이후 사회 변천에 따른 북한의 언어 이질화에 대해 남한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북쪽의 언어재료 특히 말만들기든지 한자정리든지를 읽고 느낀 것은 이상(리상)주의적 순결한 도덕성과 인격존중이 강조되는 점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듯합니다. 늘상 앞으로 나가려는 전진성은 언어생활에도 많이 나타나나 남쪽과 같이 전통존중이 그리 강조되지 않는 듯합니다.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논리적(론리적) 표현을 존중하나, 남쪽과 같이 관용을 애용하

— [www.kci.go.kr](http://www.kci.go.kr)

54 조승복(2004), pp. 980-982.

는 버릇이 널리 보급되지 못한 듯합니다.<sup>55</sup>

조승복은 남측 말은 전통적이고 관조적이며, 북측 말은 혁신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여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서 발생하는 언어 변천에 대해 철저히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더욱이 이 글에서는 남북 언어 이질화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지표인 두음법칙 존폐 문제를 ‘이상(리상)’이나 ‘논리적(론리적)’과 같은 괄호 병기법으로 처리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어느 한쪽의 규범적 우위를 인정하기보다 양측 언어에 동등한 시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질화된 두 표기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미적 기층을 지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언어 규범을 설계하려는 시도는, 말년에 집필한 한글 회고록인 『분단의 한』에서 구체화된다. 조승복은 회고록 집필에 있어서,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통일된 나라나 민족을 가리키는 ‘조선(한국)’ 혹은 ‘한국(조선)’이라는 복합 표기를 고안하여 분단 이전의 공동체의 표기로 사용하고자 했다. 또한, 남북에서 각각 다르게 제정된 맞춤법과 철자법으로 인해 통일된 언어표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표기 방식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분단된 이후 서울방언을 중심으로 만든 옛날 ‘표준어’가—원의(原義) 곧 조선 전체를 뜻하는 것을 상실하여—분단된 일방(남측)의 방언이 된 관계로 서울에서 쓰는 ‘표준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북측의 표준어인 ‘문화어’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중립적 입장을 보지(保持)하는 언어정책이다.<sup>56</sup>

남이든 북이든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 온 다수의 코리안 디

55 조승복(1994),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에 대하여」,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 소식』 장간호, p. 8.

56 조승복(2004), p. 39.

아스포라에게 어느 쪽의 표기법을 따르느냐의 문제는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작용했다.<sup>57</sup> 그런데 조승복은 이와 달리 어느 표기법도 따르지 않는 경계인으로서의 실천적 중립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단 이전의 표준어를 기본 축으로 삼되 필요시 표음주의적 표기를 병행함으로써, 고착된 규범보다 소통의 효용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우선시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적 포용력이 조승복 특유의 개방적 민족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1988년 한글학회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자제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모 선생”<sup>58</sup>이 보고연설을 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를 ‘반쪽발이’라며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민족개념이 너무나 협착하다”고 비판하고, “민족 개념 규정의 기준을 (혈통이 아닌) 문화유산 공유에 둘 것을 주장”하며 “낮이 검던지 희던지 관계없이 우리말을 쓰고, 우리 문화를 향유하려 하는 사람이면, 우리 동족 혹은 우리 민족에 영입하고 싶다”고 했다.<sup>59</sup> 그는 혈통 중심의 종족적·폐쇄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우리말을 공유하고 문화적 맥락 안에서 소통하는 주체라면 누구나 민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57 상징적인 사례로, 재소고려인들의 모국어 신문이었던 『레닌기치』는 소련 붕괴 이후 제호를 『고려일보』로 바꾸고 북한식 표기법을 한국식 표기 방식으로 바꾸어 갔다. 김병학(2018), 「재소고려인 한글신문 고려일보의 역사와 전망」, 『재외한인연구』 46, 재외한인학회, p. 57 참조. 또한, 한중수교 이후 한국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문화어와의 관계 속에서 규범화되었던 종래의 ‘연변 지역어’에 혼란이 초래되자, 최윤갑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 이제 와서 조선 분령의 고통을 더 맛보게 되었구나” 하며 한탄했다. 崔允甲 외(1994), 『朝鮮語在中國, 朝鮮, 韓國使用上の差異之研究』, 延邊人民出版社, p. 2 참조.

58 당시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나고야 한국학교장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어제와 오늘」을 『二重言語學會誌』에 발표하여 재일조선인들의 70% 이상이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지적한 김환이 아닐까 추측된다. 김환(198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어제와 오늘」, 『二重言語學會誌』 4, 서울: 二重言語學會, pp. 235-265.

59 조승복(2004), p. 978. 조승복은 1988년 10월 10일 일기에 “논문 발표를 하었는데 나의 ‘文化民族主義’에 對한 注意에 反應이 적더라.”라고 감상을 남겼다. Cho Seung-bog(1988), *Resedagbok I: 1988.10.18.-11.18.*, Unpublished draft document, Cho Seung-bog's Archive, Uppsala University Library, Carolina Rediviva, Sweden.

있다는 혁신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주창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결속하는 ‘상상의 공동체’<sup>60</sup>로서 민족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각은 재외 코리안이 필연적으로 지니는 문화적 혼종성을 결합이 아닌 민족적 자산이자 외연 확장의 계기로 포용한다. 결국 조승복의 언어 동질화 운동은 단순한 남북 언어의 절충을 넘어, 혈연과 체제의 장벽을 허물고 언어적 유대감 위에서 ‘우리’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실천적 민족론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조승복의 실천은 순탄하지 않았다. ‘동·추·회’와 ‘동·연·회’ 활동을 조승복과 함께하며 조승복 회고록의 편집에도 관여했던 김영호에 따르면, 조승복의 원고는 “문체가 한문투성이에다가 맞춤법에 어긋난 한말 시대의 어투여서 그대로는 도저히 출판하기 힘들어서 대폭 수정, 편집이 필요했다”고 한다.<sup>61</sup> 출판사 역시 “현대에 통용되는 표현으로 다소간 바꾸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그가 중립적이라고 주장한 ‘우리말’ 표기법은 사실 분단 이전 간도에서 사용되었던 시대착오적인 옛 규범에 가까웠던 것이다. 하지만, 조승복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영호는 당시 “조 교수는 마치 성경의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고집 센 보수파 크리스천처럼 보였다”고 회고했다. 결국 출판사의 편집 방침에 동의하지 않아 직접 출판을 철회하는 등 여러 차례 난관을 겪은 끝에 자비 출판을 선택했고, 최종적으로는 한자표기와 철자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62</sup> 따라서 출판된 자서전의 표기는 조승복의 중립주의적 표기 방식을 온전히 담고 있지는 않다. 남한의 표기법도 북한의 표기법도 따르지 않은 그의 중립주의적 표기법은 남한의 학계나 출판계에 수용되지 못한

60 베네딕트 앤더슨(2018),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서울: 길.

61 김영호(2014), p. 38. 이하의 인용도 같은 쪽.

62 조승복 아카이브에는 2003년 당시 회고록의 편집을 담당하던 도서출판 증명에 보낸 서신이 남아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원고의 “致命的 오류에 대한 설명도 없고 대책도 없”는 출판사의 무책임한 편집 태도를 질책하며, 출판 취소를 통보했다.

채 끝나 버렸다. 조승복의 시도는 분단이 고착화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돈키호테식’(quixotic) 기획이자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진정성은 역설적으로 남북한 모두가 외면하던 분단 시대의 언어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실천이었음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가 남긴 ‘경계인의 시각’은 오늘날 더욱 절실한 동시대적 의제가 된다. 특히 혈통적 순결주의를 넘어 언어적 유대감을 공동체의 토대로 삼으려 했던 그의 개방적 민족관은,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인 현재의 한국 사회가 ‘상상의 공동체’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의 실패는 한 지식인의 한계가 아니라 분단 체제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지표이지만, 그가 지향했던 ‘중립적 언어 공간’의 창출은 가속화되는 언어 분화와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정치적 상상력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조승복(2004), 『분단의 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 대구: 케리그마.
- Cho, Seung-bog (1988), *Resedagbok I: 1988.10.18.-11.18*. Unpublished draft document, Cho Seung-bog's Archive, Uppsala University Library, Carolina Rediviva, Sweden.
- Cho, Seung-Bog (1989), *Resedagbok: 1989.5.5.-9.7*. Unpublished draft document, Cho Seung-bog's Archive, Uppsala University Library, Carolina Rediviva, Sweden.

### 논저

#### ㉠ 한국어 문헌

- 김금석 외(1988), 『조선언어문학 국제토론회 논문집』, 北京: 민족출판사.
-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 金敏洙(2007), 『現代語文政策論: 그 실태와 개선안』, 서울: 한국문화사.
- 김민수·이상혁(2009), 「이곳 이 사람: 김민수」,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원.

- 김병학(2018), 「재소고려인 한글신문 고려일보의 역사와 전망」, 『재외한인연구』 46, 재외한인학회.
- 김영호(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을 읽고」,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 김환(198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어제와 오늘」, 『二重言語學會誌』 4, 서울: 二重言語學會.
-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1994),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 소식」 창간호.
- 류렬(1988),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몇가지 이론적문제」, 『조선언어문학 국제토론회 논문집』, 北京: 민족출판사.
- 리문철(2001), 「중국조선어학회 창립 20주년기념대회에 참가하고서」, 『중국조선어문』 (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朴榮順(1986), 「金敏洙 著『北韓의 國語研究』」, 『亞細亞研究』 7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원.
- 변광수(2014),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 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편(2008), 『정판룡, 세계를 가다』,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이타카키 류타(2024), 고영진·임경화 역,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서울: 푸른역사.
- 임경화(2022), 「중립 지향의 재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아서: 북구의 언어학자 조승복의 어떤 전후사」, 『인문논총』 79(4), 인문학연구원.
- 정호윤(2017), 「문화대혁명 속 타자(他者): 연변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조승복(1988),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수와 연구 현황」, 『한글』 201·202, 한글학회.
- 조승복(1994),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에 대하여」, 『우리 말 우리 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 소식』 창간호, ‘동·추·회’ 창립준비위원회.
- 조승복(1996), 「통일의 길」,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 조승복 외(1991), 「한국어 통일방안」, 『二重言語學會誌』 8, 서울: 二重言語學會.
- 최경봉 외(2023), 『우리말이 국어가 되기까지: 대화로 읽는 국어 만들기의 역사』, 서울: 푸른역사.
- 최상철(1980), 「스웨덴학자 조승복 교수를 찾아서」, 『연변문예』 78, 《延边文艺》月刊社.
- 허인영(2024), 「북유럽으로 간 언어학자: 조승복(1922-2012)의 삶과 한국어 연구·교육」,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서양 문헌

- Cho, Seung-Bog (1982), “The Koreans in China and Their Language,” *Fenno-Ugrica Suecana* 5, Uppsala: Uppsala universitet.
- Cho, Seung-Bog (1991), “The Korean Language of the New Era,” *Ijung-eoneohakhoeji* (二重言語學會誌) 8, Seoul: Ijung-eoneohakhoe (二重言語學會).

- Cho, Wonhyong (2025), "Cho Seung-bog (1922-2012) as a Linguist: Focusing on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1967),"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5(1), London: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 Edström, Bert (2025), "Twists and Turns in the Life of a Remarkable Scholar,"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5(1), London: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 Kloss, Heinz (1969), *Research Possibilities on Group Bilingualism: A Report*, Quebec: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on Bilingualism.
- Lim, Kyoungwha (2025), "Opposing War in the Heart of the West: Cho Seung bog's Antiwar Activism after the Korean War,"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5(1), London: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 Tikhonov, Vladimir (2025), "Cho Seung-bog: An Academic Life in Overlapping Contact Zones and the Meanings of Reversed Nihonjinron,"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5(1), London: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 Zhou, Minglang (2010), "Sociolinguistic Research in China," *The Routledge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Around the World* (ed. by Martin J. Ball), Routledge.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14일

## ABSTRACT

# A Contact-zone Person Reconnects a Divided Language

Lim, Kyounghwa\*

Cho Seung-bog's Movement for Korean  
Linguistic Homogenization

This study explores a new practical model for addressing the linguistic diverg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life history and intellectual activities of Cho Seung-bog (1922–2012), a linguist and a quintessential “contact zone person” (*gyeonggyein*). To date, discourses on linguistic unification have primarily focused on state-led efforts to reconcile South Korea’s Standard Language (*pyojuneo*) and North Korea’s Cultural Language (*munhwaeo*). Consequently, the existential practices of Korean diasporas outside the peninsula have often been overlooked in academic discussions.

This paper highlights Cho’s unique “locality” and neutral perspective, shaped by his journey from Kando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llowed by his exile in Sweden. Upon visiting his hometown in Yanbian in the late 1970s, Cho discovered the Yanbian dialect and defined it as a “third Korean language” capable of mediating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serving as a bulwark for recovering linguistic homogeneity. He introduced the academic value of Yanbian Korean to Western academia while

---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for Historic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emphasizing that linguistic unification is a prerequisite for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proposing a neutral “language planning” acceptable to both Koreas.

Furthermore, from the late 1980s, Cho engaged in practical language movement by collaborating with South Korean academia and organizing groups such as the “Association for the Restoration of Homogeneity in Our Language and Culture” (*Dongchuhoe*). Based on the ideal of a neutral civil society free from state intervention, he envisioned the Korean diaspora playing the role of a “bridge” connecting the two Koreas. Although his movement failed to reach fruition due to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 the structural barriers of the national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racticality of his adherence to archaic linguistic norms, and his personal uncompromising principledness — his “open nationalism,” which sought to expand the category of the nation based on linguistic and cultural ties rather than bloodline,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oday’s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His efforts mark a vital manifestation of practical nationalism that aimed to dismantle the boundaries of the Korean national division system and embrace new national assets in the realm of culture and language.

**Keywords** Cho Seung-bog, Contact Zone Person, Movement for Linguistic Homogenization between Two Koreas, Yanbian Korean, Korean Diaspora, Language Planning, Neutrality, Open Nationalism